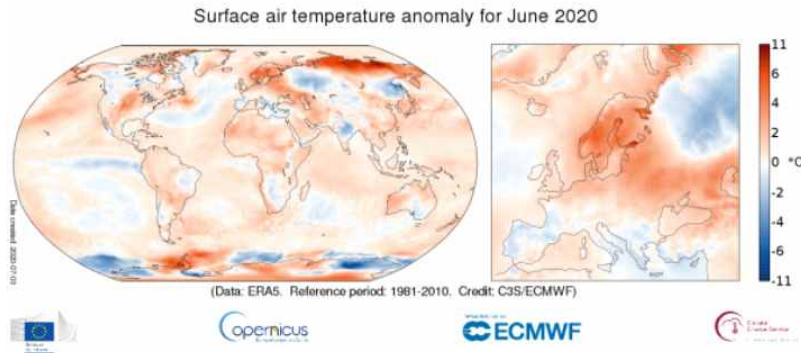


고열에 시달린 6월 지구, 시베리아 북극권 마저..



(07.08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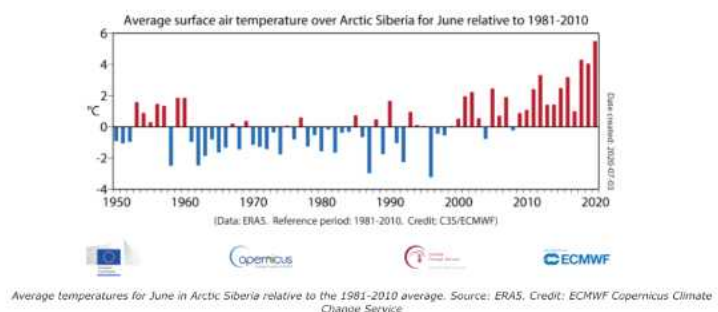
2020년 6월은 평균기온이 2019년 6월에 기록했던 역대 1위 관측기록 비해 불과 0.01°C 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더웠다.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시베리아 북극권이 이례적으로 고온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지구적으로도 지난 6월 평균기온은 1981-2010 기간 중의 6월 평균보다 0.53°C 높았다.

시베리아 북극의 6월 평균기온은 평년 6월 평균치보다 10°C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것이 산불을 더욱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난 6월과 그 이전 12개월 동안 시베리아는 가장 큰 양의 기온 편차를 보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가열 추이는 지난 6월 20일 러시아기상청 소속 베르호얀스크 관측소에서 38°C가 기록되면서 최고조에 이른다. WMO는 이 값이 북극권 북부 지방의 새로운 기록인지의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시베리아와 북극권은 연간 기온 폭 변화가 큰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전에도 여타지역에 비해 따뜻한 6월을 보이기도 했다. C3S의 보고에 따르면, 금년 5월에도 시베리아 서부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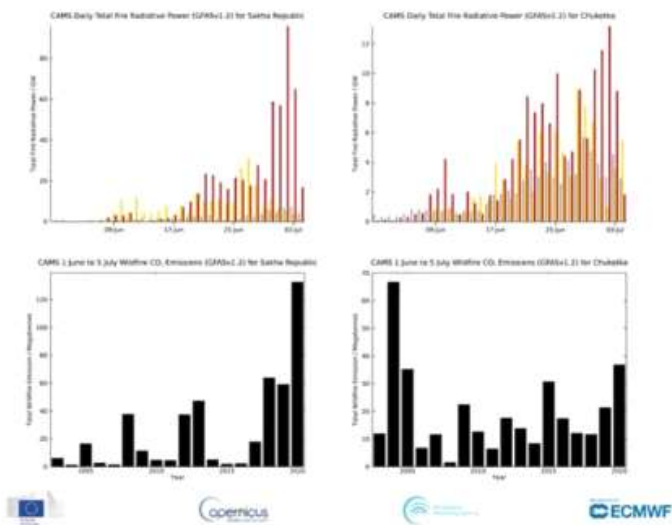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길게 이어져 왔다. 그런데 6월 들어 같은 지역에서 기온이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는 시베리아



전 지역의 기온분포가 곳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C3S가 내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6월 시베리아 북극 지역의 눈 덮임과 토양수분은 6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고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토양수분이 평상시보다 낮았던 것으로 인해 산불 발생률이 높아졌고, 주로 시베리아 북동단에 화재가 집중되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산하의 코페르니쿠스 대기모니터링서비스(CAMS)의 전문가들은 5월 초 한대 산불철이 시작하면서부터 산불동향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사하공화국과 추코트카 자치주에서의 산불, 그리고 이들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알래스카 일부 지역과 유콘테리토리에서의 산불이 6월 둘째 주부터 점점 많이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졌다. CAMS에 따르면 이때의 CO2 배출량은 데이터 누적 18년 역사상 가장 많았다. 6월 한 달 동안 CO2의 대기 중 배출 추정량은 59 메가톤이었고, 이

양은 작년 6월 총 배출량 53 메가톤보다 6메가톤 많은 양이다.

기후월보에 따르면, 유럽대륙의 북부에서는 기온이 지구평균보다 높았고 남부는 낮았다. 기온은 육지에서는 대체로 지구평균보다 높았는데, 특히 미국 중부와 캐나다 남부 및 북동부,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 중동, 중국, 남미, 호주 등지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남극 대륙의 경우는 겨울에 접어들면서 지형이 다양하게 변하는 특성을 보였고 그에 따른 기온은 평균 대비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인도 북부의 기온은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